

지난 3월 9일 공화국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중앙선거위원회가 보도한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하여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하였다.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법에 철저히 준하여 진행된 이번 선거는 공화국의 전체 군대와 인민이 공민으로서의 본분을 지니고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화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뚜렷이 파시한 뜻깊은 정치적사변으로 된다.

이번 선거는 엄숙한 주변정세 속에서 진행되었다.

선거가 진행되는 그날에도 조선반도에는 침략적인 외세가 몰아오는 북침전쟁의 불기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꾀년이 되어 날뛰면서 남조선에서 또다시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았다. 《방어훈련》의 미명하에 강행되고있는 이 위험한 전쟁소동은 수십만의 병력과 핵잠수함, 구축함을 비롯한 살인군사장비들이 투입된것으로 하여 조선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점점으로 끌어가고있다.

미국 전 대통령 부쉬와 국무장관 케리는 존엄높은 공화국을 《매패적인 나라》, 《악의 나라》라고 악랄하게 헐뜯는가 하면 미국은 그 무슨 《도발》, 《유엔 안보리사회결의위반》을 운운하며 반공화국제재압살소동에 더욱 기승이 되어 날뛰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에는 조선반도를 학살 날로 높아가는 전쟁위협에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그 어떤 동요나 주저도 없었고 모두가 공민의 자각을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여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져가려는 자자들의 열의를 파시하였다.

대결의식에 팍 물젖은 남조선의 보수사회물들과 언론들이 이번 선거를 두고 어찌구저찌구하며 악에 반친 비방중상을 하였지만 온 나라 인민은 순수한 애국의 한 마음으로 누구나 선거장에 달려나가 기쁨과 환희속에 찬성의 한표한표를 바치였다. 이 경이적인 현실은 공화국정권이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얼마나 흔들림없이 굳건하고 강

한가를 여실히 보여준것으로 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피를 물고 달랠드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정수리에 내려진 선군조선의 단호하고 드센 철추가 아닐수 없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정권과 제도를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뜨거운 열의, 일심단결에 받들려 미국의 침략소동에도 끄떡없이 선거는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파시하며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었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높이 모신것은 공화국의 강화발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정사로 된다.

알려진것처럼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모든 선거구 선거자회의들에서는 전체 선거자들의 한결같은 열망을 담아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로 높이 추대하는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개서한을 보내시어 모든 선거자들의

믿음과 기대에 감사를 표시하시고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시였다. 백두산선거구의 선거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높이 모시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선거에 100% 참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여기에는 그이를 단결의 유일중심, 평도의 유일중심으로 끝까지 받들고 따르려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이 깃들어있다. 이 경사스러운 보도에 집한 각지의 인민들은 너도나도 경축의 춤바다를 펼치고 그이의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맹세들을 피력하였다.

국가과학원의 한 로과학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소망이고 녀념이었다고, 자신은 우리 과학자들을 제일로 위하고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평도를 높이 받들어 내 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건설하는데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의 한 농장원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으로 추대되시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온 농장원들이 기쁨에 넘쳐 춤바다를 펼치였다고, 그이께서 바라시는데로 올해농사를 잘 지어 쌀로써 인민주권을 굳건히 받들것다고 결의를 피력하였다. 전

체 인민의 애국의 열의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는 공화국을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더욱 힘차게 떠밀며 이 땅우에 인민의 리상과 모든 꿈이 찬란한 현실로 수놓아지



찬성의 한표를 바치고 흥겨운 춤을 추는 해외동포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말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정권은 단순한 권력기관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권입니다.》

《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 정치의 담당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정권이란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인민정권의 본질적우월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민정권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정권건설과 활동을 벌려나감으로써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권리와 자유,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고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튼튼히 지켜나가고있습니다.》

인민의 다함없는 힘모와 신뢰에 받들려

지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한 크나큰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다.

이 경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끝없는 신뢰의 표시이며 그이의 선군평도따라 이 땅우에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힘모는 결코 하루아침에 생겨난것이 아니다.

어버이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던 이 나라 사람들,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던 12월의 그 나날 전체 군대와 인민을 한몸에 안아 일으켜세워 주신분, 그이는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에 대한 열렬한 총칭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 투철한 평도력, 고매한 인덕으로 조국인민들을 피눈물의 바다에서 일으

켜세워주시고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승리의 진군길에 내세워주시였다.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 얼마나 많은 로고를 바쳐오시였던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이고 인민들의 삶의 요람인 공화국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되겠기에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이시다.

피눈물의 12월을 보내고 맞는 새해의 첫 아침 조선인민군 군위서유류경수제 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변함없이 이어가신 선군의 길, 그 길에는 적들의 총구가 지척인 판문점도, 적진으로부터의 거리가 불과 350m밖에 되지 않는 최전방의 까칠봉초소도, 자그마한 목선을 타시고 풍랑사나운 파도를 헤쳐 찾으신 섬초소들도 있다.

주체101(2012)년 3월 초 서해안 전방초소인 초도 방어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조국은 혁명선열들이 피로써 평취한 고귀한 전취물이라고 하시면서 방어진군인들은 조국의 수호자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전투진지들을 더욱 철벽으로 다져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찾으시는 초소마다에서 군인들에게 조국수호의지를 심어주시고 공화국의 국력을 철벽으로 다져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조국인민들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을 모시어 내 나라의 존엄이 수호되고 인민의 행복이 담보된다는 철리를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적으로!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가시는 정치는 인민사랑의 정치이다.

주체101(2012)년 9월 초 창건거리에 새로 입사한 평범한 로동자가정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당과 국가의 모든 정책이 인민을 위하여 실시되는것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라고 하시면서 세집에 서 행복하게 살았기를 축복하시였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인민들은 최상의것을 누려야 한다는 절대불변의 좌우명,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련해주시려던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는 드림없는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평도가 있어 이 땅에는 창건거리와 룡라인야유원지, 류정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미림삼구락부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으며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온 강산에 울려퍼지게 되었다.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펼쳐가시며 인민사랑의 길을 걸고걸으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칭송하여 노래

《그이 없인 못 살아》, 《불라는 소원》, 《인민은 일련단심》,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을 부르며 그에게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의 평도를 한마음으로 받들어 갈 드로우는 열의를 안고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오늘 세계는 경애하는 그이의 평도실력에 매혹되어 《인류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김정은평도자》, 《인간사랑의 정치로 인민의 심장을 통째로 틀어잡으신 회색의 정치가》, 《궤율과 기백이 넘쳐나는 김정은평도자의 발걸음따라 자기의 미래를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가는 조선》이라고 격찬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평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평도를 끝까지 받들어나가려는 조국인민들의 불변의 신념이 있어 공화국정권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강성국가건설에서는 보다 큰 전진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제사격경기에서 쓰는 목표의 규격이라고 해도 인민들이 리용하는 데는 작아서 불편을 느낄수 있다는것을 헤아리시고 인민들이 리용하기 편리하게 더 크게 만들어세우도록 해

도 그이께서는 몸소 손님이 앉을 의자에 앉아도 보시면서 인민들이 편리하게 모든 부문에서 선편리성의 원칙을 구현할때 대하여 간곡하게 이리시었다.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최상급의 수준에서 꾸려진 옥

게 할것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이번 선거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감격과 환희를 안고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이해의 창조와 건설에서 더 큰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갈것이며 창공에는 존엄높은 공화국기가 무궁도록 나뭇기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달라진 목표의 규격

주신것이다. 여기에는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언제나 최우선, 절대시하시고 인민들이 사소한 불편도 없게 모든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이 깃들어있다.

사고와 실천의 기준에 언제나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놓으시는 원수님의 다심한 인민사랑의 손길은 비단 메아리사격판에만 깃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이께서 찾아가시는 모든 곳, 그이께서 일떠세워주시는 모든 창조물들마다에 깃들어있다.

새로 일떠선 창건거리의 한 식당을 돌아보실 때에

류아동병원도 그렇고 짧은 사람들은 물론 아이들도 찾아와 말을 할수 있게 크고 작은 말들이 다 갖추어져 누구나 불편없이 승마를 배우고 줄걸기는 미림삼구마구락부에 가보아도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절세위인의 사랑의 세계를 가슴쓰겁게 느낄수 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수물놀이장의 실내물놀이장을 돌아보시다가 문득 한곳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동행한 일꾼들은 실내물놀이장안에 그 어떤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 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영문을 몰라하는 일꾼들을 정정게 바라보시던 그이

사실 실내물놀이장은 말 자체로 실내인것으로 하여 이곳에 해가림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해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놀이장을 리용하게 될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깊이 관심하시며 이렇듯 자그마한 세부에 대해서까지도 대변에 헤아리시고 일깨워 주신것이다.

이렇듯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첫 자리에 놓으시고 따듯이 풀어주고 보살펴주시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정의 세계, 사랑의 세계인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의 글

조국과 자주적정권

사람들의 자주적 권리, 민족, 민중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정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국가정권은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며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제일생명이자.

위대한 김정일평도자께서는 위대한 김정일평도자께서는 로동총계과 인민대중은 자기 손에 주권을 쥐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어야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고 하였다. 민중의 자주적정권을 세워야 자기 민족, 민중의 지향과 요구, 자기 나라의 구체적, 력사적조건과 민족특성에 맞게

다만 자기 민족, 민중의 리익을 고수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할수 없다. 민중의 자주적정권이 서고 그에 의하여 나라의 자주독립이 고수되고 민족, 민중의 자주적이고 행복한 삶이 담보되는 곳이라야 민족, 민중의 참된 조국이라 할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평도자께서는 정권은 일정한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정치적 지휘권이며 사회제도의 성격과 사회의 발전을 좌우하는 기본요인이라고 하시였다.

국가정권의 본질이 과학적으로 명시됨으로써 국가정권에 대한 가장 올바른 리해가 확립되게 되었으며 민족, 민중의 참된 조국에 대한 리해에서 왜 자주적정권이 중시되는가 하는것을 리론적으로 근거있게 되었다. 민중이 국가정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정권에서는 정권의 본연의 정치기능 즉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휘의 기능이 주되는 기본기능으로 된다. 민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 사회주의적민중정권이 세워져야 사회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민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맞게 개조변혁하고 민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꽃피는 참된 삶과 행복의 보금자리가 마련될수 있다.

김현환



은 겨레가 민족의 어버이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좌우명은 인민을 하느님처럼 여기는 이민위천이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인 주체 59(1970)년 3월 어느날 그이께서 황해북도 사리원을 현지지도하실

정권기관청사보다 더 높이 일떠선 인민의 집

때 있는 일이다. 시안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중심거리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맞은편 공지를 가리키시며 저기에 10층짜리 고층살림집을 얹히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올린 한 일꾼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설계에서 빼놓는데 대해 말씀드렸다.

그의 대답을 듣고나선 주석께서는 무슨 이유때문에 그렇게 했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그 자리에 높은 주택건물을 얹히면 맞은편에

본사기자